

파견기간	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7608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 명	송은서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어 교환학생을 꿈꿔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쯤 되니 학교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일정 기간을 함께하는 것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러한 갈망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파견 국가를 정할 때는 '유럽권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항공우주공학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공과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독일로 자연스럽게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그중 아헨공대는 학부 과정에는 항공우주공학과가 없지만, 석사 과정에는 개설되어 있어 다양한 항공우주공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독일 서쪽에 위치한 소도시 아헨은 인구의 약 5분의 1이 학생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아헨 공대뿐만 아니라 FH Aachen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거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 학생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면적이 크지 않아 도보로 30분 이내면 대부분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고, 기차로 1시간 남짓이면 쾰른과 뒤셀도르프 같은 대도시에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버스로도 1시간 내외 거리에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위치해 있어, 국경을 넘는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이름, 여권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몇 주 후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안내하는 첫 번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일정이 확정되면 두 번째 이메일을 통해 대사관 방문 날짜가 통보되며, 지정된 일자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서류(보험, 슈페어konto 등)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인터뷰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비자 발급 완료와 수령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비자는 신청 순서대로 배정되는 방식이라, 출국 직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뷰를 제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기숙사 지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교환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해주는 Quota Room 지원과 학생들이 직접 기숙사 신청 사이트에 조건을 골라 선택하여 지원한 후 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학교에서 메일이 와서 신청하게 되는 방식인데, 배정이 되면 희망 입주일 두세 달 전에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배정받은 한국인 학생을 거의 보지 못했고, 저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기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아헨공대로의 파견을 확정된 후 바로 지원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5개월 정도 기다린 후 운이 좋게 입주 한 달 전 두 세 개의 연락이 왔었는데, 이 때 해당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보통 자신들과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 인터뷰라고 생각하여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서로 친해지기 위한 대화라는 생각으로 사람들 자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아야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으며, WG라는 어플을 통해 플랫폼 스위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기숙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들어본 바로는 걱정한 것보다는 수월하게 방을 구했다고 하니 기숙사가 떨어졌다고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출국 전후로 해당 어플로 지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Student fee로 약 300유로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헨이 포함된 NRW 주 내의 모든 지역 열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메스터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한 Tvk 기숙사의 경우 월세가 220유로였고, 보증금은 두 달 치 월세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거주한 기숙사 특성 상 학생들이 기숙사 웹사이트와 세탁 등의 관리를 직접 진행했는데, 관련하여 기숙사 시스템 관리비라는 명목의 3유로를 매달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비자 인터뷰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간을 착각하여 조금 지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인터뷰를 다시 신청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꼭 미리 도착하세요!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RWTH online 웹사이트에서 개강 일주일 전부터 개강 이후 한두 달 까지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강의들이 모두 정원이 매우 많아 원하는 강의를 전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이 겹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역량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공학부의 경우, 타과 강의를 수강하고 싶다면 과목 수의 3분의 1 이하로 수강해야 기계공학부 이수를 인정해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서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아헨공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거의 다 석사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석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수강신청이 자유로운 만큼 학기 시작 후에도 여러 번 수정이 가능했고, 최종적으로 수강

을 결정한 수업은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 Multibody Dynamics, Tensor Algebra and Tensor Analysis for Engineers II였습니다. 전술한대로 최대한 항공우주공학과 수업을 수강하고 싶었으나, 제가 수강한 학기에 대부분의 수업이 독일어로 개설되어 CFD 수업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학점 인정 등을 고려하여 제가 들은 과목은 일명 명강 혹은 꿀강으로 알려진 과목들은 아니었지만, 기계공학과와 FEM, Rail Vehicle Vibration Dynamics 등은 시험이 어렵지 않다는 후기를 들어 추천합니다.

3. 학습 방법

세 과목 모두 과제는 없었고 시험도 기말고사 한 번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과목 난이도는 전부 서울대학교의 전공 수업들과 비슷했던 것 같고, CFD의 시험 난이도는 꽤 어려웠습니다. 귀국 날짜로 인해 CFD를 제외한 두 과목은 구술시험으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 필기시험 보다는 수월했습니다. 시험 특성 상 자세한 문제 풀이를 평가하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물으셨기 때문에 구술 시험을 보게 되신다면 개념 설명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필기 시험의 경우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익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학교 내의 language center에서 독일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수업이 수준별로 개설됩니다. 다만 이 언어수업은 수강료 200유로를 지불하여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강 일주일 전에 Welcome Week 행사가 진행되는데,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이 행사에 최대한 전부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강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현저히 적어지니,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BeBuddy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의 버디 친구를 사귀실 수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면 자연스럽게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강의에서 출석체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아헨공대에는 목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에 한국인 학생들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시험 기간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스포츠 수업의 경우 인기 있는 수업은 몇분 만에 정원이 차니 스포츠 수업을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고민하신 수 정해진 시간에 티켓팅하여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다이빙 수업을 수강했는데, 만족했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블럭국 및 코인육수 챙겨가시면 물가가 비싼 나라 여행 시 및 일상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기에 좋습니다. 다른 한식 재료들(쌀, 라면, 그 외 조미료 등)은 시내에 있는 go-asia라는 아시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마트 물가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합니다. 야채나 과일의 경우 한국보다 확실히 저렴하고, 해산물은 비쌉니다. 과자나 음료수는 한국과 비슷하고, 맥주 및 와인의 가격이 매

우 저렴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생필품의 물가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는 한국의 1.5~2배 정도로 비쌉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당 : 아헨에서 추천할 만한 식당은 Chinese mensa, Yan Tasty가 있습니다. 두 식당 모두 중식당인데, Chinese mensa에서는 4-5유로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간장 찜닭, 야채 볶음, 치킨 등의 반찬과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Yan Tasty에서는 여러 명 방문 시 인당 10유로 초반대로 마라 생선, 마파두부, 고기 튀김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빵집 중에서는 Nobis 빵집을 추천합니다. 아헨에만 있는 빵집 프랜차이즈로, 한국의 소보루빵과 비슷한 빵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빵을 좋아하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의료 : 저는 Tk 공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비가 한달에 139유로로 꽤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보험카드를 제시하면 병원에서 가다실 주사를 접종비와 주사비만 내고 공짜로 맞을 수 있으니 꼭 맞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은행 : 은행 계좌는 N26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웬만한 마트나 식당에서 애플 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했습니다. 슈파카세 은행도 자주 보이는데,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셔도 좋고, 현금이 필요할 때 슈파카세 Atm을 찾아가면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 : 세메스터 티켓을 사용하여 뒤셀도르프 공항이나 쾰른-본 공항에 무료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차 탑승 때마다 신분증과 함께 티켓 검사를 하니 항상 챙겨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 : 휴대폰은 vodafone e-sim을 사용했습니다. 약정 해지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월 15유로로 데이터 30기가 사용 가능한 선불 요금제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하면 개통 방법 등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Welcome Week 기간에 동아리 소개제가 열립니다. 동아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행사 참여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여행의 경우 저는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크로아티아,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총 13개국을 여행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3주에 한 번씩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여행 시에는 기내용 캐리어가 생각보다 유용하니 챙겨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아헨은 새벽 3시에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다녀야 하는데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학교 건물 근처는 비교적 사람도 많고 거리가 넓어, 서쪽 west역 근처에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쪽의 Rothe-Erde역 근처는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헨이라는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헨에서 보낸 5개월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는 시간이었고, 저를 좀 더 알 수 있게 된 가치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으로 경험한 외국 생활은 당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제게도 삶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09 월 01 일
지원자* 서명 필수	송은서 (인) 송은서